

중국고무협회 한국 방문



2003년 10월 6일 중국고무협회(CRIA : China Rubber Industry Association)의 회장 Ju Hongzhen씨의 16명의 인원이 협회를 방문했다.

무역 타워 51층 무역클럽에서 이루어진 이번 만남은 양기관 대표자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양국의 고무 및 타이어 산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오찬으로 진행되었다. 프리젠테이션에 관하여, 우리 협회는 “한국 고무 및 타이어 산업의 발전”이란 주제로 이루어졌고, 중국 측은 중국 고무 협회와 중국의 고무 및 타이어 산업 현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이후 양기관간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이는 오찬 시간까지 계속 이어졌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상호간의 고무와 타이어 산업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대화로 분위기는 고조되었고 중국 고무협회 회장의 “이번 원수는 베이징에서 갓졌습니다”란 반어적인 농담으로 자리는 마감되었다.



중국 고무 협회는 1984년에 정부의 공사급으로 설립되었다. 조직 구성은 총회를 중심으로 자동차 타이어, 이륜차 타이어, 카본블랙, 벨트, 마케팅 등 9개의 분과로 나뉘어져 있으며 최근 재료공급, 제품생산의 2개 분과가 설립되어 기존 9개의 분과를 써포트 하고 있다. 총 1,000여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데 이에는 자체 기업, 국영 기업, 외자 기업등 그 기업 형태가 다양하다. 지역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없어지는 회사와 생기는 회사의 수도 많아서 통계집계가 용이하지 않아 정확한 수

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2002년도 천연고무와 합성고무의 소비량은 대략 280만톤 정도 되고 그 비중은 반반 정도 되며, 금년에는 290만톤 정도의 고무 소비량을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타이어 생산은 연간 총 1억 6천만개 정도 되는데 이중 3천 만개 정도는 이륜차 타이어이다. 자동차 타이어의 수출량은 생산량의 1/3정도를 차지하며, 주요 타이어 생산 브랜드는 8개로 국제 상표에 등록되어 있다. 중국시장에서 한국과 금호 타이어의 성장은 가속화되어 올해에는 전년대비 37.5%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번 방문은 중국 고무 협회와 대한타이어공업협회간에 처음 이루어진 만남으로 앞으로의 상호 교류를 통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지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은 중국시장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대한타이어공업협회 회지과>